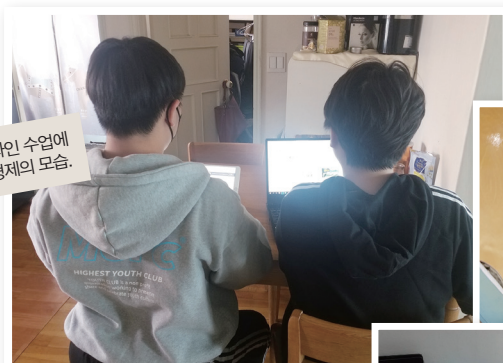


취재 배경은 리포터 bibibibi22@naeil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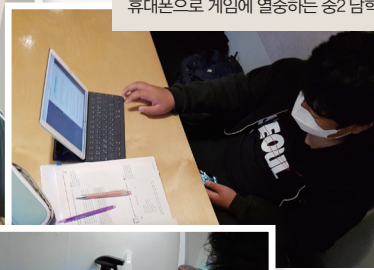


몸도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 자녀들과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마주하게 되죠.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거나, 속을 알 수 없어 눈물이 나거나, 어느새 다 자랐나 싶어 기특함도 느껴집니다. 소소하지만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보려 합니다. 부모들의 해우소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.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메일(ena@naeil.com)로 보내주세요. **편집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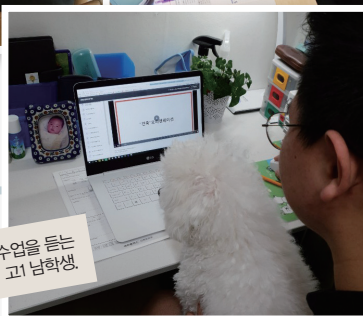
나란히 앉아서 온라인 수업에
임하는 형제의 모습.



온라인 수업 중 책상 밑에 숨겨둔
휴대폰으로 게임에 열중하는 중2 남학생.



반려견과 나란히 수업을 듣는
고1 남학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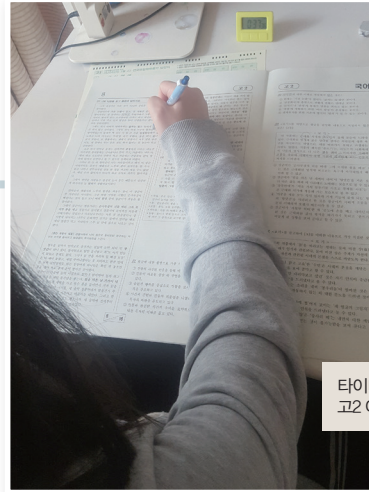
지금은
온라인 수업 중~

혼자서는 심심해?

중·고등학교 전 학년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. 집집마다 ‘엄마’를 외치는 소리가 더 자주,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네요. 컴퓨터 연결이 안 되거나 사용법이 막힐 때마다 불려대는 통에 참관 수업 하듯이 지키고 앉아 있느라 진땀을 뺀다는 엄마들의 하소연이 이어집니다. 수업 화면을 켜놓고 책상 아래로 스마트폰을 하는 건 아주 흔한 풍경이지요. 아이가 둘인 집에서는 각자 방에서 조용히 공부하면 좋으련만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티격태격하느라 수업은 뒷전이고요. 반려견을 안고 온라인 수업에 임하는 모습도 자주 연출됩니다. 짖으면 어쩌나 걱정될 법도 하건만 화면에 빨려들어갈 듯 열심히 듣는 걸 보며 혹시 ‘멘사견’이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랐대네요.

집에서 치른 학평의 결과는?

지난달 2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학력평가가 채택 방식으로 치러졌어요. 3월 초에 봐야 했던 시험이라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. 시험 당일 ‘부채꼴의 넓이 공식’ ‘대구법’ 등 시험에 출제된 개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가 됐죠. 대충 풀거나 엮드려 자는 것보다 검색을 해서라도 제대로 풀려고 노력한 게 가상하다는 의견과 타이머를 맞추고 시험 시간표대로 보기로 했는데 왜 원칙에 어긋난 일을 하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. 일단 자기 실력대로 풀고 나중에 채점할 때 찾아보는 게 실력 향상에 더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. 어쨌거나 모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런저런 진풍경이 연출되었나 봅니다.



타이머에 맞춰 학평 문제를 풀고 있는 고2 여학생.



이젠 중학생이거든!

입학식도 치르지 못하고 중학생이 된 중1들은 아직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. 그래서인지 온라인 개학 후에도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세수도 하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화면에 등장하는가 하면 반 친구들에게 인형이며 각종 장난감 자랑에 여념이 없는 아이도 있네요. 온라인 개학에 대해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곧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지금 경험했던 원격 수업의 이모저모가 두고두고 재미난 추억으로 남을 거라 믿습니다. @



각종 인형을 늘어놓고 수업을 듣는 중1 남학생.



잠옷을 입은 채 수업을 듣는 중1 여학생.

